

“대입 개혁안, 현장교사 중심으로”

김승환 교육감 “올바른 대입제도 구상 방안 검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0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고교 교사 중심의 연구단을 꾸려 올바른 대입제도를 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북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공표 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박근혜 정권 때 대입제도보다 후퇴했다는 반응도 나

온다”면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을 계속 해왔고 교육부도 혁신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대입제도는 혁신교육을 막아버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한 정권 내에서 서로 충돌하는 2개의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며, 현장교사 중심의 대

입제도 개혁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입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현장교사 연구단에는 특권학교의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론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교육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북의 혁신학교 정책, 평가제도 혁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교 교사 ‘상피제’에 대해 거들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교 교사와 그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

지 않겠다는 ‘상피제’는 사실상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인으로 몰아 교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지적이다.

김 교육감은 “실사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스스로 규정을 두고 같은 학년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계가 우리 사회의 기록권 세력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자기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교육계 정도의 자기규제 장치만 작동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훈기자



전북대가 19일 벨라루스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국문화축제에 참가해 한국 대학을 소개하고 한국유학의 우수성에 대해 소개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을 실시했다.

전북대, 벨라루스 우수 대학과 교류 강화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이 지역 국가 주요 대학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벨라루스 우수 대학들과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북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7부터 21일까지 벨라루스를 방문하고 있는 윤명숙 전북대 국제협력본부장 등 방문단은 벨라루스 국립대, 벨라루스 국립언어대, 벨라루스 국립공대 등 관계자를 만나 학술교류 협정체결과 교환학생프로그램, 한국어와 러시아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북대는 19일 벨라루스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국문화축제에 한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한국 대학을 소개하고 한국유학의 우수성에 대해 소개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실시했다.

이번 벨라루스 한국문화축제에는 2,000여명이 넘는 현지 사람들이 참여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벨라루스 국립대 세종학당과 공동한 전북대 방문단을 통한 우수 한국 유학 프로그

램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태권도 진흥재단 등 우수 기관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통한 한국문화 알리기와 한국 교육시스템 홍보를 통한 유학생 모집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이뤄졌다.

김용호 주 벨라루스 한국 대사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는 벨라루스 내 한국에 대한 관심과 벨라루스 학생의 한국 유학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여 한국 대학과 교육 교류를 발전시키고, CIS 국가 내에서 러시아어 교육 등에 강한 이점을 가진 벨라루스와의 관계 확대를 통해 북방외교 등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교육교류를 통해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모험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창업,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교류를 통해 해외 취창업 프로그램에 적합한 글로벌 스탠다드형 인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 북한이탈학생 직업 탐색 기회 제공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한국 잡월드 등에서 도내 초·중·고 북한이탈학생과 학부모 등 30명이 함께하는 진로 탐색 캠프를 진행했다.

‘직업찾아 꿈을 펼쳐라’는 주제로 ‘전북하나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한 이번 캠프는 ‘내 꿈을 찾아가는 진로체험’,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공감과 소통 프로그램 및 자유체험’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부모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모들에게 자녀의 흥미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오늘 와서 내가 몰랐던 직업이 많이 있는 걸 알았어요. 해보고 싶은 직업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 직업들을 체험해봤는데 좋았어요” 라고 말했고, 한 학부모는 “집에서는 못 보던 우리 애 모습을 오늘 많이 봤어요. 보통 때는 말도 별로 안하는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다르네요. 우리 애가 저런 것도 좋아하고 애랑 같이 와서 좋아요” 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이번 기회가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문화적으로도 좀 더 적응하며, 부모-자녀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원광대학교가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내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원광대,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박사 94명 · 석사 181명 · 학사 506명 등 총 781명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내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신명국 원광대학 이사장과 김도중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94명, 석사 181명, 학사 506명 등 총 781명에게 학위가 수여됐으며, 김여민(생물환경화학) 학생이 이사장상을 받고, 국제(國際)·학제(學際)·직제(職際) 등 융·복합적인 개인별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둔 3합신사(三合紳士) 인재육성 및 덕성역량과 관련해 추천된 김선희(생

명과학부), 이용현(토목환경공학과), 서주리(전자공학과), 김지양(한문교육과), 정지희(복지·보건학부) 학생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소희(산업디자인학과) 학생과 대학원 박사과정 조점범(컴퓨터공학과) 씨 등 9명이 김도중 총장으로부터 각각 공로상을 받았다.

/익산=우병희 기자

장영달 우석대 총장, 조총련 산하 조선대와 '교류협력 방안' 논의

담을 하고 학생 및 학술교류, 공동연구,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동아시아 평

화·인권 운동가인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가 배석했다.

장 총장은 앞으로 다양한 학술교류를 통해 남북화해 협력관계의 평화적

확대에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총련 산하 조선대학교는 북한의 유일한 재외 교포 대학으로 1968년 4월 10일 설립됐다. 현재 4년제 학부과정과 2·3년제 단기학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우석대학교는 장영달 총장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조선대학교를 방문해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쿄 조선대학교의 공식 초청에 의해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장 총장은 한동성 학장과 면

도교육청, 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 응급 대처 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전북도교육청은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20일 오후 1시30분 8층 회의실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처치 교육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으로, 희망 직원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성수 호원대 교수(응급구조학)가 강사로 나와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

령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했다.

이어 교육참가자들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하임리히요법 등 응급처치를 직접 실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 재난, 재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숙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